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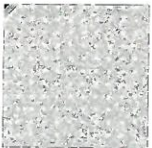
시음 주보

제2322호

2021년 1월 10일(나해)

주님 세례 축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 이사 42,1-4,6-7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ㄷ-10(㉑ 11ㄴ)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

이어!”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복음화송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르 1,7-11

영성체송 |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죄와 죽음으로 얽혀있는 인간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어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육화의 신비가 이 사건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직후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을 드러내는 하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례는 요한이 예고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선포되고 그로부터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공적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주님의 기도(마태 6,9-15)를 가르쳐 주신 것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마태 28,19)주라는 마지막 사명

수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놀라운 새로움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감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이 근원적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부정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느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하느님 아닌 것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욕망으로 우리의 내면이 몹시 불편하고 일그러져 있을지라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로 택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습에만 머물지 말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느님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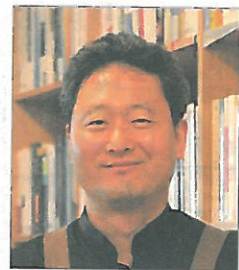
은이성지, 경기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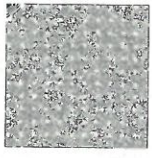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상하이 진자샹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품(1845년 8월 17일)을 받는 모습의 조형물 틈새로 ‘김대건 기념관’이 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무릎 꿇은 신부님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되돌아봅니다.



김용준 바실리오 | 가톨릭사진가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어느 날 '청년밥상 문간'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를 만나고 싶어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기에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는 정신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었기에 청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몹시 마르고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던 청년은 자신의 성소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서 찾아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성소는 바로 불교의 수도자인 승려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는 성소 고민이 아니라 불교의 스님이 되고자 하는 고민이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은 고향인 밀양에서 출가하려고 9개월 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스님을 뽑긴 했지만, 빛이 있어서 출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가톨릭도 같습니다. 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르심의 삶에 전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빛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짐작과는 달리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정도였기에 빛만 없다면 바로 출가할 수 있냐고 물으니 지난 9개월 동안 노숙을 해서 지금 출가하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건강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어 번 일용직 일을 하면서 돈이 생기면 찻집 방에서 자고 돈이 떨어지면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쪽잠을 잤다고 하더군요. 저는 노숙을 하는 청년은 처음 만났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어려운 처지의 자신

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고 열아홉 살에 마음을 먹었는데 스물아홉 살이 된 지금 출가할 길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저의 기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라며 빛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식당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머물 숙소를 연결해 주고 노숙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와 많지 않아도 빛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모으면 내년에는 출가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틀 만에 주방장님과 갈등을 빚으며 식당을 그만두었고, 한 달 후 숙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기에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더니 연락을 끊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하며 그때 끝까지 돕고 지지해 주어야 했던 건 아닌지 자책합니다. 제가 그라면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길 바랐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를
나를
이기는
성령
구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리피 4:6

김민정 소화데레사
수원교구 포일성당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서울주보는 지난 2020년 11월 28일부터 교우들이 궁금해하는 가톨릭 교리 및 교회 상식을 질문받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교리 및 교회 상식을 질문해 주세요! 선정된 질문은 서울주보 코너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게재됩니다. <참여하실 분은 QR 스캔 및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



이벤트 참여 QR

!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하나요?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그렇듯, 하느님과 반드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되리라 봅니다. 한편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쉽게 지치잖아요? 지향을 가지고 나의 바람을 이뤄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귀 기울인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더 즐거울 것입니다.

도를 통해 하느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뤄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루카복음 11장 9-13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는데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을 땐 어찌 해야 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감각적인 것들에 너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매번 보이는 것을 좇으니 말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그냥 음악을 들으면 여러 소음과 섞여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침묵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모으세요. 그렇게 주님께로 향할 때 새의 지저귐, 바람의 움직임, 빗방울의 속삭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편 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 생애를 두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으며 광야를 건넌고, 긴 유배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

!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대화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 기도할 때 자주 다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서는 일생에 딱 한 번 분심 없이 묵주기도를 바쳐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크루즈를 타고 관광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흔들려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였다고요. 농담 같은 말씀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바랄 때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심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며 잔잔해진 내 마음 위로 떠오르는 거겠죠. 물에 떠있는 낙엽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지, 치우려고 휘휘 저으면 고요했던 호수는 물결로 일렁이게 됩니다. 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두세요. 분심이 생겼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분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게 됩니다. 잠시만 그렇게 머무르다 보면 내 마음이 아닌 하느님께로 깊이 잠기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이요.

‘성 요셉의 해’ 선포(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12월 8일(화)에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고,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1년간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님은 이날 발표한 교서 『아버지의 마음』(Patris corde)을 통해 “모든 신자가 성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하느님의 완전한 충실성 안에서 신앙적 삶을 강화하길 바라며”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틀리기 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1월 10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❶ 정규 미사 봉헌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상 제작 및 송출 인력 포함 20인 가능)
- ❷ 성당 내에서 대면 모임과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는 금지합니다.
- ❸ 성당 밖에서 하는 식사는 자제합니다. (5인 이상 금지)

교구장일림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6일(수)~2월2일(화)

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월11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패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1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1월16일(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명동)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

한국천주교교회의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또한 교황청 내사원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에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전대사 교령을 보내왔습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받는 조건 -

전대사의 통상 조건(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함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을 채우면서, 아래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실천한다.

- (1)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성지와 성당 중에서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 첨부된 희년 주요 행사 중 한 가지에 참여하기
 - 또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 바치기

* 서울대교구 교구장 지정 순례 성지(성당): 광희문성지, 주교좌명동대성당, 가회동성당,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지, 새남터순교성지,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절두산순교성지, 종로성당, 중림동약현성당, 동대문성당, 수락산성당, 수유동성당, 신내동성당, 신천동성당, 이문동성당, 한강성당

- (2)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기

- (3)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기

인준단체 알림

모임

노들담 교육관 피정(도심 속 고요 피정)

개인, 가족, (중)소규모 맞춤 피정(대관 가능)
 곳: 종로 북촌마을 / 문의: 02)3673-2274, 010-6543-6319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지도: 토마스모어 원장 신부, 품질연구원장 임교수
 때: (금~월) 1월15일~18일, 2월19일~22일, 2월26일~3월1일, 3월12일~15일, 3월26일~29일
 문의: 010-9916-5798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돌아보며 깨닫기 / 문의: 010-3173-2665

돌개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최영민 신부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my half	(예수회)

교육

성인 초등·중학교·교육부 학력 인정(한국여성생활연구원)
 검정고시(초졸·중졸·고졸)모집,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지도
 곳: 가톨릭회관 522호 / 문의: 02)727-2471(선착순)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
 (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예수회센터 영성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심리적 치유와 성숙을 통한 영적 여정(신설)	매주(화) 14시~16시	신선미 선생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영신수련 정기 강좌	매주(수) 10시~12시	이규성 신부
여성 심리와 영성	매주(수) 10시~12시	홍기영 교수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금) 14시~16시	전주희 수사
어떻게 실제로 기독교 생활할 것인가?	실시간 영상 강의(ZOOM) 매주(목) 14시~16시	권오연 신부

모임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건강성사를 받은 만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문의: 010-9720-7015 성소 담당

2021년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38-7831
 대상: 현재 9세~12세 가톨릭(예비)신자
 연습: (화) 18시, (일) 13시 / 접수: 신청서 이메일 발송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참조
 연습재개 및 오디션 일시 개별 연락

인사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교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fca.or.kr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회수녀회)

응암동성당 '요섭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가족 갈등

여성 전화 상담	(월~금)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은 문의 바람	문의: 02)990-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반-강의 3월4일부터 매주(목) 10시~12시, 그림훈련 기본과정-13시~15시, 금요반-3월 5일부터 매주(금) 비대면 온라인 강의
생활 속의 심리학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학 기초이론- 3월4일~4월15일 매주(목) 7주 과정
사목상담	대상-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 10시~12시·13시~16시 / 무료 10회기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직원모집

명동대성당 미화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청소 담당
 미화원 1명(계약직) / 이메일(mdsdca@catholic.or.kr) 문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
 부님 확인서(타 교구 신자는 주임신부추천서)
 1월17일(일) 오후 6시까지 사무실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1월17일(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사당동성당 주간 관리인(계약직) 모집

분야: 주간 방호원(계약직) 1명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신자로 신
 체 건강하신 분(1종 운전면허 자격증 필수)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
 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채용 희망일: 2월1일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후 면접)
 1월22일까지 방문·우편(우 07014,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
 로 13길9(사당동)) 및 이메일(sdcaatholic@naver.com)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월17일(일)	본원(미아리)	010-9816-0072(pddm.or.kr)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16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2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